

## 2/3(목) 레위기 17-20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속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19:2)”

<거룩>의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 독보적, 탁월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의 영단어 Holy는 Whole과(전체) Healthy(건강)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즉, 거룩은 구별된 존재, 전 존재가 온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거룩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명령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19:36, 20:26).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구별시키시며, 잃었던 형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형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께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온전한(영, 혼, 몸의)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이스라엘은 과거의 풍속을 벼려야 합니다(18:3, 고후5:17).

앞으로 정착할 가나안의 풍습에도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이 곧 추방될 이유가 바로 그 풍속, 부정과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거룩>하지 않으면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18:24-25, 20:22-24)).

하나님은 종교적 <거룩>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 일상을 포함한 매순간의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식생활(17장), 거룩한 성생활(18장), 거룩한 사회윤리(19장),

거룩한 가족관계(20장), 거룩한 제사장직(21장), 거룩한 제물(22장), 거룩한 절기(23장),

거룩한 불과 떡, 거룩한 이름(경외)(24장), 거룩한 해(땅 소유, 주종관계)(25장),

거룩한 언약(26장), 거룩한 서원(27장)

나는 매사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❶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언가를 말하고 들을 만큼 <친밀>합니까?

❷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온전한(영/혼/몸의)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❸ 나의 일상은 <거룩한 000>가 붙을 수 있습니까?